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22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갑작스런 대체작물 변경 농민 강력 반발-2면	-	제민일보
○	가격 결정 기준 제주 마늘수확 전국 농가서 ‘주목’ -6면	-	제주매일
○	신흥1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7면	-	제주매일

(제주매일: 2024년 4월 22일)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4-15호(2024.4.22.)

여건변화 대응 농업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보급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미니단호박

- 터널 타공작업 중, 줄기 유인을 위한 망 깔기 및 웃비료 주기
- 웃비료 사용: 정식 30일 후 터널 제거 시 식물과 가까운 골에 10a당 요소 5kg, 염화加里 4kg

■ 마늘

- 2~3월 고온 및 잦은 비날씨로 2차 생장 발생
- 마늘쫑 제거 및 녹병, 잎집썩음병 방제 작업

■ 양파

- 동부지역 중·만생종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방제
- 조생양파는 분구 등으로 수확량 감소 예상

※ 2024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감귤꽃 페스티벌' 개최 알림

- 일시: 2024. 5. 4.(토) 09:00~14:00
- 장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 인원: 250명 내외 사전신청 모집
- 주요내용: 제주감귤 알찬농사 기원제, 귤림추색길 걷기(3, 5km) 등
- 유료체험: 어린이 버스킹 및 채집, 감각놀이, 귤꽃 기름떡 체험 등
- 사전신청: 4. 22.(월) 낮12시부터 <https://www.jicexpo.com>
(문의 064-762-3091)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4.22.
제주매일.4

(제민일보: 2024년 4월 22일)

○ 갑작스런 대체작물 변경 농민 강력 반발-2면

갑작스런 대체작물 변경 농민 강력 반발

정부 공 지급 목표 역행

발작물 토양생태보전사업
올해 지정작물서 콩 제외
농민단체 “과잉생산 황당”

제주도가 올해부터 발작물 토양 생태환경보전사업의 대상 품목에서 식량작물인 콩을 제외하면서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발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제주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월동 채소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대체작물 4.22 지역 회복 등 자연환경을

1제민일보 2 사업이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지정된 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작물은 지난해 6월의 경우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등 9개 녹비·사료작물과 콩, 팥, 녹두, 가을메밀, 밀, 기장 등 6개 식량작물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4일 신청 공고를 통해 6개 식량작물중 콩을 제외했다.

올해 사업부터 재배가능 지정 품목 중 콩을 제외하며, 다만 2023년 2년단위 신청 농가 중 콩 신청농가에 한해 콩 식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정부의 공 지급 목표에 역행하는 일회성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 농민들은 길게는 1년 전부터 재배할 품종에 맞게 밭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같은 계획을 도정이 한꺼번에 무너트리고 있다”며 “모든 농업정책을 ‘주는대로 받으라’는 식의 태도로 농민을 대하는 농정당국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각 지역 농업 조합장 등이 참석한 3차례의 회의를 가진 결과 콩은 제외하기로 했고, 이유는 콩의 과잉생산과 2023년 콩 수매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었다”며 “우리나라 콩 자

급률은 사료 포함 7%밖에 되지 않으며 사료를 제외해도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콩 지급률을 2027년까지 43.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024년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시 “중요한 식량작물인 국산 두류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한 점을 들어 과잉생산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발작물 토양생태 보전사업에 콩이 포함된 것은 고작 3년 정도밖에 안됐다”며 “일회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주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정품목 철회를 요구했다. 김봉철 기자

(제주매일: 2024년 4월 22일)

○ 가격 결정 기준 제주 마늘수확 전국 농가서 ‘주목’ -6면

가격 결정 기준 제주 마늘수확 전국 농가서 ‘주목’

농협 제주본부, 대정농협과 지역 마늘포전 생육상태 점검
내달 10일께 마늘 수확 본격화 전망...“제 값 받기 총력”

전국에서 수확 시기가 가장 이른 까닭으로 가격 결정의 기준선이 되는 제주지역 마늘 수확에 전국 마늘 농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농협 제주본부(본부장 윤재춘)는 지난 18일 서귀포시 대정지역 마늘포전에서 대정농협과 함께 생육상태를 점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올해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1만9300ha로 전년 대비 3.7% 감소, 5개년 평균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예측했다. 마늘 생산량은 25만2444t으로 전년 대비 19.19% 감소, 5개년 평균 대비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매일 6도 드론 관측 조사에 의하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1088ha로 전년 대비 12.4% 감소, 5개년 평균 대비 31.1%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1만6625t으로 전년 대비 4.39% 감소, 5개년 평균 대비 34.3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지역 농협의 마늘농가 계약재배 당시 가격은 1kg당 3500원이었지만 이후 수매단가가 3200원으로 낮아지며 농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진 바 있다. 보통은 마늘 수확시기엔 수입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유독 지난해에는 수입이 이뤄지며 엄청난 격이 됐다.

올해의 경우 전국과 제주에서 모두 재배면적이 줄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올해산 마늘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3500t 가량의 재고가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도 농협의 마늘농가 계약재배 단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kg당 3500원이다. 처음부터 계약재배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농가에서는 격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포전 거래 상인 제시 가격 또한 낮아질 수 있어서다.



농협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귀포시 대정지역 마늘포전에서 생육상태를 점검 중이다.

올해 제주 마늘 수확은 평년보다 3~4일 늦은 5월 10일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수확작업은 5월 15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 맞춰 제주농협은 마늘 영농지원 발대식을 대정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수매계획 일정 및 수매단가는 각 농협별 이사회를 거쳐 5월 20일 경 결정하며 이보다 앞서 마늘수산지 조합장을 구성원으로 한 마늘제주협의회에서 5월 중순 임시총회를 개최해 수매가격의 범위를 협의한다. 보통 마늘 수매는 대정농

협을 필두로 5월 25일 전후 시작해 6월 중순이면 종료된다.

강성방 대정농협 조합장은 “평년에 비해 밭마늘이 많고 단수(단위면적당 수확량)도 밀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포전에서는 무름병발생으로 병해충 방제 및 농가 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농협은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수확에서부터 수매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마늘 제 값 받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철 기자

(제주매일: 2024년 4월 22일)

○ 신흥1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7면

신흥1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

서귀포시, 23억원 투입 저수조 신설·농업용수 관로 정비
농업인 영농 불편 해소·환경 개선·고품질 과수 생산 기대

서귀포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18억8000만원을 확보,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위치는 남원읍 신흥1리 일원으로 감귤, 한라봉, 천혜향 등 과수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다.

4.22 내 농업용수는 기설 지하수 제주매일 7면

수 관로가 노후돼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관경도 작아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이어지면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2025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신규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기본설계 중으로 서귀포시는 올해 하

반기부터 세부설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총사업비 23억5000만원(FTA 기금 18억8000만원, 도비 4억7000만원)을 투입, 2025년까지 남원읍 신흥1리 일대에 배수조(V=200m³) 1개소를 신설하고 농업용수 관로 5km(수혜지역 50ha)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낡은 농업용수관로의 잦은 누수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환경도 개선, 고품질 과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두성 기자